



한명숙 남원시의회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일반 기업 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행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조지위원회가 주최하고 언론인연합회의가 주관한다. 한명숙 의원은 사회복지 박사학위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주력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봉사와 기부는 나의 또 다른 일부”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 배병선 회장 대통령상 수상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배병선 회장은 28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Again 대한민국! Together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주제로 열린 창립 제99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배 회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주춧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조지 활성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신장활동에 기여,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활동 등의 공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배 회장은 1986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 청년회원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진



안군지회장을 역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지역에서 크고 작은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배병선 회장은 “오랜 기간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해오며 ‘봉사’와 ‘기부’는 나의 또 다른 일부가 됐다”며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책임감이 어깨가 무겁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저소득가구100세대 양파 나눔

새마을지도자전주시인후3동협의회는 지난 27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파 2,000키로를 관내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가구 10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양파는 지역과 상생, 나눔 가치 실천을 함께 나누기 위해 새마을지도자전주협의회(회장 이훈구)와 새마을지도자자원봉사단연합회(회장 김용범)가 각 1,000키로씩 후원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날 나눔은 부쩍 더워진 날씨에 체력이 약해지기 쉬운 홀몸어르신 등에게 영양 가득한 양파를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피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챙기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훈구 회장은 “한주군의 로컬 양파를 받으신 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우석대 학군단, 전투지휘자 훈련 출정식

우석대학교 학군단이 2023년 하계 전투지휘자 훈련 출정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28일 학군단 연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이의용 학군단장을 비롯해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참석했다. 학군사관후보생 78명은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2개 조(31명·47명)로 나뉘어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병군사학교에서 분대 전투와 사격, 복도보급 등 전술·전투기술 훈련을 받게 된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학생 해외 봉사단 발대식... 4년 만에 재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7일 온누리홀에서 2023학년도 여름철 학생 해외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8일 전주대에 따르면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실천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구현을 위해 매년 저개발국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재개했다. 이번엔 파견되는 학생 해외 봉사단은 7월 3~15일 일정으로 총 50명을 캄보디아 프놈펜(코카비전센터, NHC, JJU 프렌드십센터)과 캄보디아 시엠타(참빛교회)로 총 2개 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프놈펜팀은 교육팀(한국어 및 한국어학, 과학, 미술, 보건 등), 문화예능팀(k-pop, 풍요, 전통 놀이, 미니올림픽 등), 노아지원팀(요리, 유아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미술 등)으로 편성되며, 캄보디아 시엠타팀은 MK시어, MK전양 축제, 음악 앙상블, 현지인 앙상블 사역을 진행한다. /장은성기자



이날 발대식에서 박진배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책임과 의무를 기본 삼아 최선을 다해 캄보디아의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전하고 무사히 귀국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기자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장수YMCA 협약 체결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과 장수YMCA(회장 박은숙)는 지난 27일 지역사회 내 취약·위기의 노인 장애인, 청소년, 조손가족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호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과 박은숙 장수YMCA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취약·위기의 장애인, 청소년, 조손가족의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 협력과 학생들의 복지증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1·3세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발대식·사전교육 실시

무주군은 28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발대식 및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안전사고 없는 물놀이”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비롯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물놀이 관리요원 20명, 순찰계도요원 10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 전북본부 김규혁 강사(응급처치 및 수상안전 자격 보유)로부터 △물놀이 수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체험, △물놀이 안전장비 사용 방법과 △각종 사고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유사시 익수자 구조사건, △근무자 수칙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또 배점순 안전민방위 팀장이 나서 △물놀이객 안전지침 및 근무요령, △물놀이 관리구역 특성에 따른 주요사항 등을 공유하고 △근무시간 및 지도단속 철저,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가 위기단계가 하향되어면서 일상회복과 함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올해 물놀이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선발된 민방위 사령관을 가지고서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 배양에 힘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올해 물놀이 관리지역 6곳을 포함해 총 12곳의 위험지역에 물놀이 스마트 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 안전관리요원이 없는 시간대까지 무인감시를 진행하는 등 물놀이 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무주=전문선기자



부안수협, 공항선착장에 넘치 50만미 방류

부안수협은 지난 27일 넘치의 자원조성을 위해 넘치종자 50만 미의 방류사업을 공항 선착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류수(대표 이동성)의 후원으로 진행해 부안수협 임직원 및 격포어촌계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부안수협에 따르면 “해류수에서 후원에 감사하다”며 “부안군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장 축소 등 최근 일본 오염수방류 이슈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수질환경보전회의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지사장 김승표)는 28일 지자체, 농업인단체, 지역주민대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용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수질환경보전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수질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 지자체의 오염원 및 불법 오염행위 감시,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질개선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낚시금지구역 지정,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저수지 상류 오염원 점검 등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의견들을 포함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희 제이텍 대표, 순창에 고향사랑기부금 쾌척

순창군 출향인들이 연이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을 기부하며 순창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주)제이텍 정희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순창군과 (주)제이텍은 도농교류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도 함께 체결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은 물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북흥면 원성마을 출신인 정희 대표는 평택에서 카드결제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 기업인 (주)제이텍을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제거, 환경정화 등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 분야로의 진출 등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희 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등을 통해 고향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화이트 해커 양성 훈련캠프 성료

전북대학교(총장 안오봉)는 26~28일까지 전북지역 해킹 방어 훈련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프는 전북대가 주관하고, 전북지역 사이버보안 교수 자문단과 국가정보원 지부 등이 공동 주최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주시 등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군산대·원광대·우석대·전주대·호원대·전주비전대 등 7개 대학 재학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와 윤리 등의 이론 교육과, 웹기반 보안위협 분석 및 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운영 교육을 비롯해 해킹 방어 대회(CTF) 등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3일 동안 이어져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기자



남원소방서, 강의 경연 최우수상 수상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7일 2023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생활안전분야에 남원여성의용소방대 성복금 대원이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망인전 전문강사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소방본부·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최, 도내 13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가하여 생활안전·심폐소생술 분야에서 강의경연을 펼치는 대회다. 성복금 대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인택트 문화 확산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가 312만 9천가구까지 늘어남에 따라 ‘우리개는 물어요’라는 주제로 팻티켓을 통한 개 물림사고 예방법을 강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인권 집합교육

남원시는 28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설종사자가 연회 이상 수요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현장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토대로 노인인권의 개념과 환경변화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학대와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신고자가 바로 신고해야 하며 깊이 있는 작은 실천이 지금 필요할 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